“군공항 성공 이전… 미래 먹거리 준비 본격화”

가뭄 극복 참여 시민들이 큰 힘
AI 2단계 사업 국비 확보 최선
전남도·정부와 군공항 이전 논의

반도체특화단지 전남도와 협력
통합돌봄·어린이 안심병원 보람
시민 참여 확대로 소통방식 변화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민선8기 성과와 과제

성과	과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광주 군공항 이전지 유치
100만평 규모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인공지능 2단계 기반 구축
전국 최초 광주다움 통합돌봄	반도체특화단지 국가공모 유치
복합쇼핑몰·어등산 개발 가시화	글로컬대학30 등 교육 정책 강화
‘월요대화’ ‘정책소풍’ 시민소통 강화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 총력

‘민생 경제’ 분야를 첫 업무로 민선 8기를 시작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복합쇼핑몰 유치,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지산IC 진출로 문제,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등 밀린 숙제로 꼽은 ‘5+1’ 현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민의 동참이 빛난 ‘가뭄 극복’, 인공지능(AI) 기반 구축,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 등은 민선 8기를 이끄는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등은 강 시장만의 시정 색깔을 제대로 드러낸 복지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강 시장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공직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꼬박 1년을 채웠다. 강 시장은 “지난 1년간 열정을 쏟아낸 공직자들과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남은 임기 3년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소회는.

-‘5+1’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도 빠르게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 ‘가뭄 극복’으로 대표되는 시민들의 참여,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군공항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 낸 공직자들의 열정,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시장의 의지 3박자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운이 좋은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운이 아니다. 광주가 지난 시간 축적해 온 것이다. 간절함·집중력·집단지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운도 간절함을 가지고 준비가 돼있을 때 우리 것이 된다. 준비하고 작전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기회와 운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제와 이전지 유치 전략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여러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 기부 대 양여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며 이전 후보지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지금은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 있다. 지난 26일에는 1조원 규모 지역개발사업지원금,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건설 등 광주시의 진심이 담긴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군공항 유치지역이 미래 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남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군공항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면 즉시 논의할 것이다.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성과와 전망은.

-광주의 미래먹거리라고 하면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부터 자율주행까지 미래차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광주가 가장 먼저 만들어 갈 것이다.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타 추진과 광주산업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이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과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미래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은 인재양성이다. 탄탄한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에 힘쓰겠다. ‘인재가 없다’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 촘촘한 인재육성 사다리, 아동에서 전문인력 대상 교육까지 광주가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저의 공약1호, 상생 공약 1호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도 중요하다. 시·도는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단을 꾸리는 등 ‘원팀’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도 반도체공동연구소 함께 유치, 전남대-전북대 공동 첨단학과 유치 등 다각도로 협업을 하고 있다.

△1년간 가장 특별했고 기억에 남는 정책과 성과는.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9월1일부터 시작하는 ‘24시 어린이 안심병원’일 것 같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감동이 매우 크다. 기존 돌봄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찾아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실 때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다. 광주가 민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통합돌봄은 현재 약 4800여 명의 시민이 약 7000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들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꼽고 싶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난제 중 난제로 꼽혔던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꼭지를 따는 특별법 통과한 날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구의 홍준표와 광주의 강기정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광주만의 민생경제대책이 있다면.

-취임 이후 첫 결재가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이었다. 그만큼 민생 위기가 심각했고 민생을 절박하게 여겼다.

올해도 경기가 좋지 않다. 광주시의 세수도 연말까지 2365억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빚을 내서라도 가계와 기업은 살려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기구인 민생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고물가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존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올해 1400억원까지 증액시켰으며, 이차보전액도 기존 2%에서 3~4%로 지급 비율을 늘렸다.

정부 정책 방침에 따라 축소 위기에 놓였던 노인일자리는 시비 86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고용인원을 유지·운영했고, 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인 빛고을 50+ 지원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렸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신속히 추진했다.

도시가스 등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영유아 부양 가구 등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광주상생카드 할인발행 지속,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지원, 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 지원 등 소소하지만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들도 진행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큰 축은 ‘민생안정’, ‘창업성공’, ‘산업융성’에 두고 2023 광주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을 수립했다. 경제 안정을 위해 1341억원 투입, 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일자리 정책과 주거·교통·에너지·통신비 경감 등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취임 당시 선언했던 ‘익숙한 것과의 결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공공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들은 시장의 기득권인데 내려놓은 것이다. 관습적 의전 대신 행사의 주인공인 시민을 꼼꼼히 챙겨주는 것을 주문했다. 관례적으로 기부금 전달식은 시청에서 진행됐지만, 이제는 시장이 기부자를 찾아가고 기념 촬영도 기부자가 가운데 자리로 옮겨졌다.

정례조회, 간부회의, 업무보고 뿐 아니라 ‘월요대화’·‘정책소풍’,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제안 플랫폼 ‘광주온(ON) 도입’ 등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결과적으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에서 관행적인 것과의 탈피로 볼 수 있다.

△남은 임기 동안 구상중인 계획은.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해 기반을 닦은 미래먹거리 준비를 본격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먼저 AI와 미래차라는 미래먹거리와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라는 양 날개로 광주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나갈 것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AI 등은 여전히 남은 3년의 과제다.

‘교육’도 중요한 현안이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도 많이 바뀌고 있고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사업이나 글로컬대학30 등의 교육환경 변화에서 광주시가 교육 컨트롤타워가 되겠다 약속한 만큼 역할을 본격화하기 위해 기존의 인재육성과를 문화경제부시장 직속 교육정책관으로 승격시켰다.

공공의료 부분도 강화하겠다. 시립의료원 예타 면제, 5개 보건소 등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이다. 취임 2년차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손에 잡히는 변화’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시민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광주시민들의 ‘절수운동’ 동참으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 150만 광주시민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셨다.

또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부터 광주의 변화를 손에 잡히도록 만드는데 시민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고 동참해 주시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공직자들을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대신 공직자들은 신뢰에 기반해서 열심히 광주 변화를 위해 뛰어보겠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조급증은 갖지 않으려고 한다. 진실한 모습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면 언젠가 알아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정리=김성수 기자